

##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원두숲 일대 생태복원사업

경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산 내면 원두숲생태공원 인접 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로, 훼손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과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산내면 외칠리 26번지 일원 9800㎡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추진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연말맞아 산타버스 달린다”

부산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 전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온 연말연시 대중교통 이벤트로 시내버스 업체와 승무원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부산의 대표 콘텐츠다.

올해는 안전성을 보완해 10개 노선, 10대가 운행된다.

시는 기존의 재미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과 차량 내·외부 래핑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람객 5만명 돌파

경북 예천군은 예천박물관이 개관 후 첫 연간 관람객 5만명을 돌파했다.

예천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거주지는 예천이 3만5099명(69.73%), 영주 5435명(10.81%), 서울1638명(3.36%), 안동 3524명(7.01%)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방문객과 인접 도시 거주자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경기 지역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천박물관은 관람객 5만명 돌파를 기념해 간단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예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청송군  
고위공무원 폭력 예방교육

청송군이 조직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 의무화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으로, 관리자 차원의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서울시, 공공서비스 통합 앱 운영  
모바일카드·전자증명서 발급 등  
시민 편의성·행정효율↑, 예산↓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ON)’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끝내고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기능 안정성·인터페이스 보완 등 시범운영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울온’ 본인 인증 한 번이면 그동안 앱을 각각 설치·가입하고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올해 11월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신규 회원 가입자는 전년



공공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서울온’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6061명 수준이던 신규 가입자는 올해 10월 3만1308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일평균 2000명 수준이던 접속자 수도 5000명 안팎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앞으로 ‘서울온’ 앱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

## 영주시, 노후 주거단지 ‘새단장’ 경북도, 난임·돌봄 지원확대 만족도 높아

풍기읍, 도시재생 지원사업 공모 선정  
총 218억 투입… 생활기반시설 확충

영주시의 풍기읍 동부리가 국토교통부 ‘2025년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총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한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에 풍기읍 동부리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국비 확보는 물론, 노후 주거지에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선정 대상지는 풍기읍 동부리 335-1

번지 일원 약 9만 5500㎡ 규모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18억 원(국·도비 10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생활 SOC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이다.

영주시가 계획한 주요 사업에는 마을 복합편의센터 조성, 안길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반집 철거와 집수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행 안전과 주차난 해소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인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만족도 94.7%

품질·안전성 확보… 학교 만족도 높아

인천광역시시는 2025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94.7%가 ‘만족’ 또는 ‘매우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축산물 공급업체를 엄격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후에도 작업장 점검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사업 참여를 희

망한 2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참여 학교와 미참여 학교를 모두 포함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참여 사유 등을 함께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사업 전반 만족도 ▲축산물 품질 ▲공급업체 평가 ▲건의사항 ▲미참여 사유 등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본사업 추진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학교 중 94.7%가 사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는 ‘축산물 품질’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플러스)’를 통해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디지털 취약계층도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화면 구성과 이용 동선을 직관적으로 개선,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알아서 보여주는 행정’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시는 이번 ‘서울온’ 통합 앱 출시로 시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오를 뿐 아니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앱 운영에 투입된 인력과 행정 절차가 줄면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서울온’ 서비스 고도화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게시판, 약관 관리, 알림·공지, 관리자 시스템 등 중복 운영되던 기능을 일원화하고 운영·보안·고객 대응·감리 체계 통합으로 운영비 연간 약 1억50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에코마일리지 등 분산 관리되던 서비스를 마일리지 통합조회 제공, 이택스(E-tax) 연계로 나의 세금 확인, 내 주변 공공시설 추천 등 지도기반 생활 정보 서비스 확대 등 내년 ‘서울온’을 생활 밀착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월 ‘서울온’ 정식 서비스 가 시작되면서 기존 서울시민카드 앱은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저출생과의 전쟁’ 성과·계획 발표

경북도가 올해 추진한 ‘저출생과의 전쟁’ 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올해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이다. 이용 어린이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7~12월 2만2700명에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며 영아 건강·육아 상담과 틈새 돌봄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지원 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



초등학교 방학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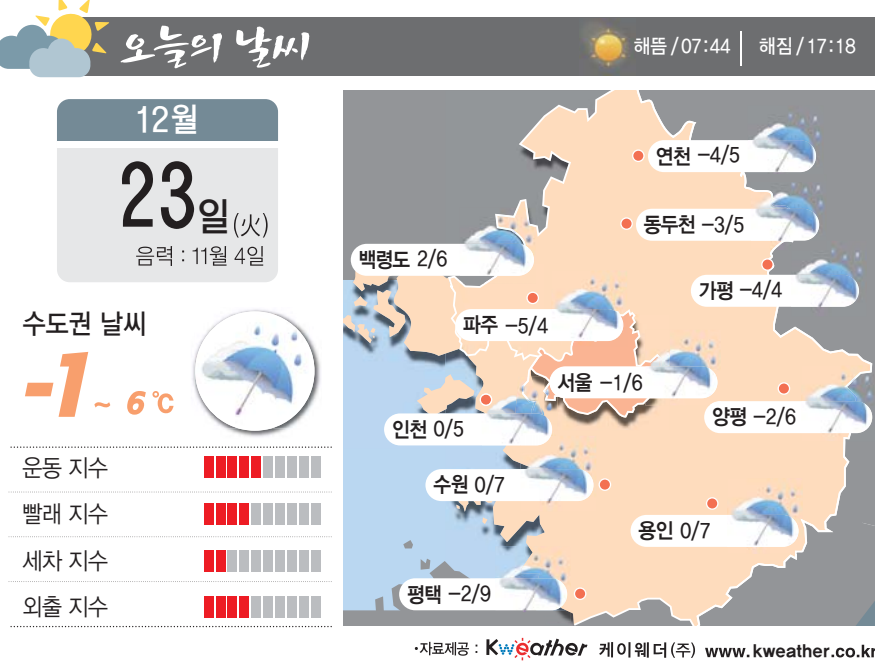
/경북도

다. 소득과 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올해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해 전면 폐지했다.

또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했다. 올해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지원, 가족 진료비 지원 등 혜택을 대폭 늘려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봤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트럼프, 어려운 외교문제 사위 재러드 쿠슈너에 점점 더 의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또 폭격… ‘헤즈볼라’ 1명 죽고 1명 부상  
/사진 뉴시스

▲美 ‘올해 경제 나아져’ 18%…책임자는 ‘트럼프’ 47% ‘바이든’ 22%  
▲中 하얼빈 빙설제, 기후온난화로 얼음 녹아내려 비상

▲日집권 자민 간부 “비핵3원칙,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  
▲쿠바, 미국의 베네수 “외국 테러 조직”지정에 반박 성명